

빈곤·불평등 자본주의 '슬픈 자화상'...세계가 공감

기생충

"기생충"이 사회 불평등과 빈부격차란 이슈를 자본주의 최정점인 미국 한복판에서 제기했다.

영국 BBC 방송의 문화 전문 선임기자인 휴 몽고메리는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관왕(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수상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를 가장 예술적으로 그렸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재미와 메시지, 예술적 성취 등이 작품에 조화롭게 투영됐다는 얘기다.

언급한대로 상위 1%가 세계 부의 50%를 차지하는 빈부격차는 세계적인 문제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정치, 경제 등에서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빈부의 문제를 공존 문제와 결부시킨 '기생충'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끈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상황이 극과 극인 두 가족의 배치는 영화적 재미를 넘어 과연 공존은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생충'의 묘미는 빈곤과 부의 문제를 심각하게 그려지 않는 데 있다. 희극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주면서 재미를 위해 상상력의 공간은 비워둔다. 다양한 소품과 반지하, 냄새가 '기생충'이라는 제목과 맞물려 영화적 상상력과 재미를 선사하기 때문이다. 세계 관객들이 빈부격차의 생생한 장면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한편으로 영화는 1대 99로 재편되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루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봉 감독이 '기생충'을 계단 영화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봉 감독은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가파른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려 했던 가난한 남자가 오히려 계단을 내려가면서 끝나는 이야기다. 그것이 우리 시대가 담고 있는 슬픈 모습"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극과 극 캐릭터에 강렬한 메시지...영화적 상상력 선사

박소담 '제시카 송' 부터 '소고기 넣은 짜파구리' 까지 열풍

이렇듯 흥미진진한 전개와 살아있는 캐릭터, 보편적인 주제가 잘 어울려 진점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끈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말로 제작된 순수한 한국 영화가 각본상과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세계인들이 우리의 대중문화에 공감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외문화홍보원이 조사한 '2019년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76.8%가 한국의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0명 중 4명이 대중문화를 꼽았는데 영화와 K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다.

'기생충'이 남긴 유행도 세계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영화 속 기정(박소담)이 부른 '제시카 송'이 그것. '제시카는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니 사촌-'이 노래는 기정과 기우(최우식) 남매가 박 사장네 집에 들어서기 전, 그들이 만든 기정의 인물 '제시카' 프로필을 외우기 위해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해 부른 노래다. 배급사 네온은 '제시카 송' 영상을 SNS에 올려 인기를 끌었다.

영화 속 송승(장혜진)이 요리하는 '짜파구리'도 맥방 열풍을 지켰다. 박사장의 아내 연교의 전화와 받고 송승이 한우를 넣어 만드는 짜파구리는 간식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밖에 각각의 다른 문구가 들어간 해외 포스터도 화제를 낳았다. 김상만 감독이 디자인한 기존 포스터에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에서는 "집입자를 찾아라"는 문구를 넣었으며 일본에서는 "반지하 가족"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인공 기정과 기우 남매가 화장실에서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 애쓰는 장면.

소심했던 소년, 할리우드 주류 감독으로 우뚝

"봉준호 자체가 장르" 평가
외할아버지 소설가 박태원



시상식에서 포옹하고 있는 봉 감독(오른쪽)과 배우 송강호. /연합뉴스

영화감독이 되고 싶던 어리숙하고 소심한 소년은 마침내 세계 영화산업 중심인 할리우드에서 오스카 트로피를, 그것도 한꺼번에 4개나 품에 안았다.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 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등 영화제 수상은 물론 평단과 흥행을 동시에 얻었다.

봉 감독은 오스카 캠페인을 거처며 이미 할리우드 유명인사가 됐다. '봉 하이브'(Bong hive- 봉 감독 열성 팬덤)라는 신조어를 낳았을 정도다. 하이브(Hive)는 벌집을 뜻하는 단어로, 봉준호에 대한 열성적 팬덤을 '벌떼'에 비유한 것이다. 할리우드 거물급 인사들이 앞다퉈 그의 팬임을 자처하는 모습은 더는 낯설지 않다.

그의 인기는 '기생충'의 뛰어난 작품성 뿐만 아니라 유머러스한 화법과 인간적인 면모에서 비롯한다. 각종 시상식에서 그의 수상 소감 한마디 한마디는 좌중의 웃음과 환호를 끌어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다. 자신의 공을 먼저 앞세우는 법이 없다. 그는 이날 시상식에서도 배우들과 제작진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BAFTA 시상식에서도 "제가 쓴 대사와 장면들을 훌륭하게 화면에 펼쳐준 배우들에게 감사하다. 살아있는 배우들의 표정과 보디 랭귀지야말로 가장 유비무설한 만국 공통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실 강박증과 불안에 시달린다고 고백한다. 그는 "정신과 의사가 내가 불안감이 심하다고 하더라.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강박적 성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영화 제작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의 강박증은 완벽주의로 통하기도 한다. 매 작품 치밀한 시나리오와 디테일한 설정으로 '봉테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엉뚱하고 자

유분방한 상상력, 날카로운 사회 인식과 만나 독특하고 개성넘치는 작품으로 완성된다. 그의 영화는 범죄와 미스터리, 스릴러, 공포 등 장르를 넘나들며 '봉준호 장르'라 불린다. 장편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2000)부터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옥자'까지 그의 작품 속에는 유머와 휴머니즘, 날카로운 사회 인식이 녹아있다. 만화광이자 만화수집가이기도 한 그는 직접 쓴 각본을 만화 콘티로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봉 감독은 1969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사회학과와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한 뒤 16mm 단편영화 '프레임 속의 기'와 '지리멸렬'로 1994년 밴쿠버와 홍콩

영화제에 초청되며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그의 집안은 예술가 피가 흐른다. 외할아버지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천변풍경' 등을 쓴 소설가 구보 박태원(1909-1986)이다. 2017년 작고한 아버지 봉상균 씨는 서울산업대 미대 교수와 한국디자이너협회 이사장 등을 지낸 한국 1세대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누나는 봉지의 연세대 패션산업과 교수, 형은 서울대 영문과 봉준수 교수다. 봉 감독 아들 효민(본명 봉효민) 씨도 웹툰 '결혼식'을 연출했다. 봉 감독은 "아내가 내 대본을 처음으로 읽는 독자"라며 "매번 대본을 끝내고 아내를 보여줄 때마다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봉준호 옆엔 '봉준호 사단'이 있다

4작품 주연 배우 송강호·번역가 달시 파켓·통역가 최성재 등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92회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차지하면서 송강호를 비롯한 '봉준호 사단'과 통·번역가 등 숨은 공로자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송강호는 봉 감독 영화 '살인의 추억'(2003)을 시작으로 '괴물'(2006), '설국열차'(2013)에 이어 '기생충'까지 네 작품을 함께하며 '봉준호의 페르소나'가 됐다. 봉 감독은 지난해 5월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위대한 배우가 없었다면 한 장면도 찍지 못할 영화였다"면서 "동반자 송강호에게 공을 돌렸다."

송강호는 '기생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4인 가족의 가장 '기택'을 연기했다. 직업도 대적도 없이 살다가 아들 '기우'(최우식)가 부잣집 과외선생으로 취직하자 인생 역전을 노리는 '계획'에 가담한 뒤 큰 사건에 휘말린다.

'기생충'이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어" 외국 관객들을 사로잡고, 마침내 난공불락과

도 같은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정복한 데는 번역의 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리말을 영어 자막으로 옮긴 이는 미국 출신 달시 파켓(Darcy Paquet)이다. 그는 한국에서 20년 넘게 자막 번역과 영화 평론가 등으로 활동해왔으며 '기생충' 특유의 맛깔스러운 대사를 누앙스와 상징성을 잘 살려 번역해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봉 감독 옆에서 통역을 도맡아 해온 최성재(샤론 최) 씨도 빼놓을 수 없다. 봉 감독 의도를 정확하게 살려 통역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에게 봉 감독은 '언어의 아버지'라는 수식어를 붙여줬다. 10일(한국시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그는 줄곧 봉 감독과 함께했다.

'기생충'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술상과 편집상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정교한 세트와 생동감 있는 편집은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 중심

에는 이하준 미술감독과 양진모 편집 감독이 있었다.

이하준 미술감독과 조원우 세트 디자이너는 부잣집과 반대되는 반지하 집, 비가 오면 물이 아래로 흐르듯 높은 곳의 부자 동네와 낮은 곳의 반지하 동네 등 대비를 염두에 두고 세트를 만들어 전 세계 관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기생충'은 미국 미술 감독조합(ADG)상을 받은 바 있다.

양진모 편집 감독은 기택네 가족이 가정부 문광을 몰아내고 박사장 집에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 리듬과 타이밍, 음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편집으로 눈길을 끌었다. 양 감독은 '설국열차'(2013)와 '옥자'(2017) 등에서 봉 감독과 함께 했다.

'기생충' 음악을 맡은 정재일 음악 감독도 '기생충' 주역 중 한명이다. 봉 감독은 "우아하지 않는데, 우아한 척하는 음악"을 주문했고, 정 감독은 그런 의도를 반영해 음악을 완성했다. 올해 아카데미상 주제사 예비후보에 오른 연민국 '소주 한잔'은 정 감독이 작곡한 멜로디에 봉 감독이 가사를 입힌 곡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

'기생충' 수상은 세계의 승리...외신들 뜨거운 관심

'기생충'이 오스카 역사상 처음으로 작품상 수상 등 4관왕에 오르자 외신들은 성 "오스카의 새 역사를 썼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지금껏 어떤 한국 영화도 할리우드 최고상에 후보로 오른 적이 없었다"면서 "한국 영화 '기생충'의 수상은 국제영화에 대한 미 영화예술과 학 아카데미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로 작품상을 수상했다"면서 '기생충'의 수상을 "세계의 승리(a win for the world)"라고 까지 보도했다. 이어 "제목 그대로 '기생

충'은 미국 영화상 시즌, 궁극적으로는 역사에 둘러붙어(attaching) 오스카 유권자(미 영화예술과 학 아카데미 회원들·AMPAS)들을 매료시켰다(get under the skin)"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기생충은 오스카를 이끄는 내부자들로부터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LA타임스는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받으면서 오스카 역사에 남게 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특히 봉 감독이 언급한 '인종 높이의 자막'을 언급하며, 기생충이 외국어 진출작이라는 어려움에도 관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됐다고 강조했다.

CNN방송은 "'기생충'은 작품상 수상으로 오스카의 역사에 남게 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국영화 '기생충'이 경쟁작들에 비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지금껏 오로지 11편의 국제 영화만이 오스카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중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 됐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예측가능성으로 점철된 시상식 시즌 끝에 오스카가 일요일 밤 '기생충'에 작품상을 수여하면서 극적으로 마지막 엄청난 비틀기(twist)를 선사했다"고 평가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